

五 卨 미 나

(7月22日(日) 9時半)

會場：中央教育研究所 講堂

1. 내가 본 韓國圖書館의 當面한 課題

講師：Kenneth Croslin (피 바티 教育使節團 圖書館 專門家)

◎司會 李鍾文(圖協 事務局長)=本大會의 이틀째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그럼 式順에 따라 K·크로스린氏의 말씀이 있겠는데 어저께 나와서 祝辭를 해주신 「가슬린」博士는 이 使節團의 責任者이고 이분은 여기에 나와있는 使節團中에서 圖書館 專門家입니다. 그동안 이분은 많은 功勞가 있었고 이제 任期가 끝나서 내일 아침에 떠납니다. 이제 「내가 본 韓國圖書館의 當面한 課題」라는 題目으로 말씀이 있겠습니다.

(장내 박수)

◎K·크로스린(피 바티 教育使節團圖書館 專門家)=大會長 大會任員여러분 그리고 親友여러분! 本大會가 어제부터 始作이 되었지만 이러한 機會는 各級 圖書館에서 手苦하시는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가지 問題를 討議하게 된 이러한 機會는 가장 드문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지는 피 바티를 代表해서 여러분에게 正式的으로 人事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매우 意義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피 바티計劃은 지금부터 6年前 1956년에 始作되어 1962年 今年에 끝나게 된 것은 가장 섭섭하고도 또한 한편으로는 그동안 다소 業績이 이루어졌기때문에 이點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제한된 時間에 韓國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일, 여러가지 稱讚할만한 일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한정된 時間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勿論이 여러가지 재미스럽고 훌륭한 일이 일어난것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보다도 더 잘 알줄 믿습니다. 오늘 이 時間을 通해서 過去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그리고 생각하고 있던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오늘 첫째로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韓國圖書館人들이 자기와 圖書館을 爲해서 어떤 奉仕를 할수 있는가 하는데에 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時間에 여러분과 또 圖書館에 對한 質問을 세가지 하고 또 거기에 對한 對答을 찾아봅시다.

첫째는 韓國圖書館教育이 國民教育에 어떠한 役割을 할수 있는가. 韓國圖書館教育이 地方뿐만 아니라 各都會地에 指導者를 養成할 수 있는 機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圖書館教育은 오히려 實際로 나가서 서로 奉仕할 수 있는 산教育이 되어야겠습니다. 圖書館教育은 발에다가 씨를 뿌려서 結實맺는 열매처럼 圖書館에 씨를 뿌려서 훌륭한 圖書館人을 養成해야 할것입니다. 이와같이 훌륭한 圖書館人을 養成한다고 하면 가장 圖書館奉

仕의 精神이 確固하고 獻身的인 圖書館人을 養成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圖書館教育은 使命感을 갖인 깊은 決心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앞으로 獻身할 수 있는 마음의 準備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있어서나 圖書館人의 義務는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됩니다. 特別히 이러한 境遇는 民主國家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君主時代에 있어서는 國民을 나라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民主國家에 있어서는 國民들이 그 나라를 統治하고 있다고 말할해도 과언이 아닌것입니다. 여러분은 民主國家를 形成하려고 努力하기 때문에 이러한 問題를 成就하기 爲해서 熱心히 努力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民主國家를 形成하는데 있어서는 國民이 잘 教育되어야 하고 또 여러가지 知識을 잘 傳해 주어서 國民各自가 많은 知識을 習得하고 있지 않으면 完全하고도 確固한 精神을 土臺로한 民主國家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러면 圖書館이 國民에 對해서 어떠한 役割을 할수 있는가, 學校에 對해서 圖書館이라는 것은 學生들에게 많은 資料를 供給해줄 수 있는 圖書館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學校에서 提供하는 資料는 學生들을 도울 수 있는 冊으로서 先生과 같은 役割을 하는 많은 資料를 圖書館이 提供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서는 國民學校에서 부터 大學校까지 學校마다 圖書館을 設置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期待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 안가서 韓國에 各學校마다 圖書館이 設置되었다는 기쁜消息을 듣고 싶은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國民에게

圖書館이 奉仕하는 것은 國民에게 많은 教育的인 資料를 供給하여 國民을 啓蒙시키는 데 큰 役割을 할수 있는 圖書館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資料들은 또 亦是 國民에게 기쁨을 가져올때도 있고 슬픔을 가져올때도 있을것입니다. 또 이러한 圖書館資料는 國民自身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爲해서 理解하는데도 적지않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의 또 많은 것이 있지만 時間關係上 그 만치하고 세계로는 圖書館人들은 國民을 爲해서 어떤일을 할수 있는가 첫째로는 圖書館人은 國民에게 親切을 베풀고 獻身的으로 奉仕함을 目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圖書館職은 奉仕하는 職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司書職은 學問各分野에 있어서 專門的인 資料를 提供해줄 수 있는 그러한 專門職의 圖書館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自己自身을 爲해서 고상한 精神 或은 높은 理念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奉仕할 수 있는 概念을 確固히 지녀야 되겠습니다. 熱心히 努力을 해서 自己自身을 專門職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奉仕할 수 있는 길을 學問的으로 뚫아나가도록 努力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圖書館이 國民에게 어떤 役割을 할수 있는가 또 圖書館人이 國民에게 어떤 役割을 할수 있는가 이런 問題에 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것은 여러분의 圖書館協會는 여러분들이 모인 團體입니다. 또 여러분께서는 이 圖書館協會를 熱心히 協調하면 國家的인 모임으로 할수도 있고 또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 형편없는 有名無實한 團體를 만들 憂慮性도 있습니다. 7年前보다는 지금은

훌륭한 指導者들이 協會를 中心으로 集結되어 있기때문에 지금은 좀더 發展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指導者들이 모인 國家的인 모임에서 圖書館協會 이사진 및 여러 指導者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條件이 具備되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努力만 하시면 보다 많은 큰 發展이 있으리라 確信합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아직도 韓國圖書館 歷史는 日淺한바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反面에 얼마나 빨리 韓國圖書館이 發展되고 있다는것을 여러분이 또한 잘 아실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몸을 活動해서 活用함으로서 보다 健康한 몸을 維持할 수 있는것입니다. 과거 1年동안 이러한 짧은 期間동안 여러 專門인 圖書館人들이 自己의 獻身的인 活動으로서 努力하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따금 우리의 身體

가 故障이 나서 넘어지고 障害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는 그 專門職이라는 意識을 보다 瀟灑하게 達成하기 爲해서 活潑히 움직이어야 되겠습니다. 韓國의 師範教育의 向上을 돕고있는 菲波의 教育使節團이 過去 6年동안에 많은 經驗과 얼마의 業績을 남겼다면 그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는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세스 스와이저, 미스타 버제스 兩氏와 그리고 내自身이 여기에 와서 가장 많은 經驗을 얻고 여러분과 같이 일하고 또 奉仕하게 되었다는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는바입니다. 끝으로 바라는것은 여러분께서 저의들을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또 저의들도 여러분을 잊지않고 기억할 것을 約束하는바입니다.

하나님의 祝福이 여러분에게 끝까지 같이 하시기를 祈願하는바입니다.

(장내 박수)

2. 韓國의 書誌學과 圖書館

講師：李 弘 植 (高麗大學校 圖書館長)

◎司會=다음은 高麗大學校 圖書館長으로 제시는 李弘植先生께서 「韓國의 書誌學과 圖書館」이라는 題目으로 말씀이 하시겠습니다.

◎李弘植(高麗大學校 圖書館長)=只今 紹介 받은 李弘植입니다. 只今 제가 韓國의 書誌學과 圖書館이라는 題目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에 있어서 여러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이라는 것은 事實은 우리가 解放後 오늘까지 17년이됩니다만 우리가 韓國民으로서 우리나라의 文化를 어떻게 이루워 나가느냐 하는것 그

런것을 제가 工夫해온 分野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解放後 우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自己自身の 힘이 도차라기때문에 또는 없기때문에 많은 外部의 도움을 받아오고 있는것입니다. 우리自身으로서 할수 없이 恒常 남의 힘을 빌어서 이것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心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勿論 아시겠지만 이 圖書館이라는 것은 國民의 文化를 向上하는 源泉이 되어서 恒常 이끌어가는 中心이 되어야 되는데 그나라가 어디까지나

그 民族으로서 뿌리를 박은 文化를 가지고서 將次의 우리나라를 점치고 나아갈 사람들을 우리가 指導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나라에 뿌리가 박힌 文化라는것이 어떻게 育成되어가느냐 하는 問題가 恒常 우리에게 생각될것입니다. 여기에 저한테 주어진 題目은 「韓國의 書誌學과 圖書館」인데 이것을 나는 나대로 이 짧은 時間에 있어서 좀 좁혀서 解釋을 해서 몇가지지를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韓國의 書誌學이라는 것은 여러가지로 廣範圍하게 생각할수가 있습니다마는 좀더 具體的으로 좁혀서 생각한다면 過去 우리나라의 書冊이 어떠 어떠한게 著述되고 刊行되었는가 또는 中國을 비롯하여 外國에서 어떤 冊이 들어왔느냐 等等 古圖書를 中心으로 하는 學問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밝힌다면 우리나라의 過去의 文化 또는 그의 指向한바가 어떠한가, 그리고 現在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傳해지고 있는가 하는 問題도 自然히 알수 있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現在 大部分의 公共圖書館에 있어서는 新刊圖書가 主로 많아서 一般閱覽者나 또는 圖書館人들에게는 매우 特殊한 分野에 屬할 問題라고 생각이 될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韓國人으로서 우리祖上이 여태껏 傳해 주신 그런 文化財를 普通 常識程度로라도 우리나라의 基礎文化가 어떠한것이 있는냐는 태두리만이라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圖書館이라도 次次 圖書蒐集의 範圍가 넓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圖書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古書의 蒐集도 하여 그것을 다루는분이 생길것입니다. 圖書館人은 大體로 閱覽者를 指導하

는 職責에 있는만큼 어떠한 問題를 閱覽者들이 가져오더라도 어느만치 議論의 對象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적어도 어떠한 冊이 나오고 있다던지 또는 어떠한 論文이 나오고 있다던지 大體로 알고 있어야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只今 이자리에는 相當한 專門家도 많이 제시겠습니다만 여기서는 一般의인 立場에서 우리나라의 古書를 어떠한 方向으로 工夫해야 될것인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現在 여러가지 現實로서 困難한일이 많습니다만 東洋에서 3國하면 于先 中國 우리나라 日本을 말하는것인데 이 3國中에서 우리나라가 絶對로 빠지지 않는 存在가 되어있다는것 이것은 여러가지 角度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過去에 있어서도 그랬고 또 現在도 文化民族으로서 文化面에 있어서 相當한 向上을 가져오고 있는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어느時代거나 個人的으로 보아서 優秀한 文化民族의 素質을 가지고 있다는것은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가 自負해도 조금도 損色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時代를 通해서 볼때 오히려 外來文化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消化해서 또 그것을 土臺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著作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歷史적으로 여러분이 回顧해 보더라도 于先 三國時代부터 新羅統一, 高麗時代, 李朝時代를 通해서 우리는 許多한 記錄을 가지고 있습니다. 三國時代의 高句麗사람들은 전적을 좋아하고 書堂을 꾸미어 많은 靑年들이 文武를 닦았다는 事實이 外國人눈에 띄우고 있을만치 되었습니다. 또 百濟가 中國의 南北朝時代에 많은 文物을 받아가지고 日本初期에 天文, 醫學 等等의 여러가지 技術者를

보내고 또 전적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常識적으로 알고 있는것입니다. 新羅統一기에 들어서서 文化的 꽃이 피우는데 따라서 많은 書籍이 著作되었다고 보고 있는것입니다. 이 新羅統一기에 있어서 優秀한 文人 學者들 世界的으로 이름을 날린 高僧들도 많이 있는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것입니다. 高麗時代에 들어가서는 次次 좀더 仔細한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歷代 新羅歷史編纂의 中心이 되는 實錄이 編纂된것으로 알려졌읍니다. 우리 祖上들은 歷史를 編纂하는데 있어서 歷史는 어디까지나 嚴正中立의 立場에서 事實대로 後世에 傳한다는 高貴한 精神을 가지고 있고, 이 精神은 高麗 李朝時代를 通해서 볼수 있는것입니다. 高麗中期에 武人의 亂이 일어났던 毅宗(毅宗) 때의 예를 들어도 王 스스로가 사관을 大端히 尊重했다는것이 高麗史에 나옵니다. 때로 王은 어떻게 自己에게 對해서 잘못을 쓰지나 않나 해서 살피기 爲해서 干涉을 하려해도 恒상 史官은 王에 대해서도 史官의 立場을 主張하고 있습니다. 李朝時代에 들어와서도 世宗大王도 그러한 일이 있었읍니다. 史官의 일을 干涉하려고 할때에 史官은 斷然코 이것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歷史는 嚴正히 쓴다는 精神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 精神은 中國에서부터 傳해온 것이겠읍니다마는 이 精神自體가 眞理를 探求한다는 精神하고 通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祖中期에 있어서 黨爭이 甚하던때에 歷史를 編纂하는데 있어서 그 反對黨이 得勢했을적에 自己네의 立場에서 實錄을 뜯어 곤친일이 몇번 있어서 所謂 修正實錄이 생겼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神奇한일은 過去 우리

나라 祖上들은 그 反對黨에서 만든 實錄을 없애지 않았읍니다. 오늘날 양쪽 實錄을 볼수 있다는것은 이만치 우리 祖上들은 黨爭이 甚하더라도 합부로 歷史的인 記錄을 없애지 않았다는것을 알수가 있는것입니다. 또 우리 祖上들은 이러한 文獻을 永久히 保存하려는 精神을 이미 高麗時代부터 엿볼수 있는데 高麗 高宗 때의 海印寺를 비롯해서 이 史庫의 制度가 생겼읍니다. 只今까지 남아 있는 李朝實錄은 壬辰倭亂에도 地方에 分藏한 中의 全州史庫것이 남아서 이것을 가지고 亂後에 곧 復刊을 하여 또 各史庫에 分藏했읍니다. 犧牲實錄뿐만 아니라 여러 전적을 戰爭後의 어려운 살림에도 復刊을 하였읍니다. 이러한 歷史는 만나라엔 그리 없다고 생각해도 過言이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우리 祖上들이 現在까지 傳해주고 있는 貴重한 圖書를 研究하는것이 「韓國書誌學」이라는 하나의 分野가 構成되는데 于先 어떤 어떠한 冊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書目的問題, 나아가서는 그 內容 또 書誌學的인 板本의 問題와 아울러서 우리나라에서 發達을 보인 活字의 問題, 여러가지 研究할 分野가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于先 冊이름을 많이 알아야 되겠읍니다. 李祖時代에 各 地方誌 같은 데에는 書目과 더불어 冊板目이 나왔읍니다. 그런중에서 李祖 中期에 著述된 攷事撮要에는 各道의 冊板目錄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中央과 地方에서 出刊한 官板이 相當히 있고 또 民間板 土板이라고 하는것도 찾아볼수 있는데, 增補文獻備考의 藝文考에 서지에 關한 記錄과 書目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以前에 英祖 正祖時代부터 차차 여러

가지 書目이 編纂되기 始作하여 奎章閣總目이나 또는 徐有渠의 鏤板考 等도 있는데, 日帝時代에 들어서서 韓國서지學은 次次 開拓되어 圖書解題도 次次 생겼습니다. 其中 日本人에 마에야고사구(前間恭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冊을 모으고 自己의 個人的인 備忘錄으로 해제를 붙인 手稿가 있어서 그것을 東京의 東洋文庫에서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龍大 한 것인데 日本의 五十冊으로 冊名이 配列되어 解題이 붙어 있습니다. 한편 이 사람이 四庫全書式으로 分類한 解題의 目錄이 서울大學 圖書館에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冊이 얼마만큼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此外에도 現在에 서울大學은 古書를 主로 많이 가지고 있고 現在 國立圖書館에도 相當히 古書가 있어서 近者에 古書目錄이 나오고 또 現在 거의 死藏되고 있습니다만 昌慶苑안의 藏書閣에도 古書가 많이 있고 李王家 藏書閣 古圖書目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日本의 東洋文庫에서도 朝鮮本目錄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마에야氏의 藏書의 一部입니다. 日本안에 우리나라의 古書는 此外에도 相當히 많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壬辰前板은 거의 日本에 있다시피 되었습니다. 우리는 次次 이와같은 書目을 통하여 知識을 養成해야 되겠습니다. 또 專門的으로 이것은 各分野의 古圖書 假令 醫學書에 對해서는 어떤 것이 있다던지 이런 研究를 해야 되는데 解放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몇몇 同志間에 모여서 서지學에 關한 여러 가지 얘기도 해 보았으나 아직 이러한 모임이 큰 어떠한 事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圖協의 會長이신

閔泳珪先生이 韓國서지學會에 對하여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또 우리가 恒常遺憾히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6·25動亂때에 犧牲된 國立博物館에 館長으로 계시던 李在郁先生과 副館長이던 朴奉石 兩先生의 일입니다. 이분들은 古圖書에 對하여 많은 造詣가 있으셨는데 이분들이 오늘날까지 있었다면 더 많은 研究를 一般에게 普及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時間도 다 된 것 같아서 結論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現實的으로 國民文化를 向上시키는데 있어서 圖書館의 活動分野가 어디까지나 韓國人으로서의 땅에 뿌리를 박은 堅實한 文化를 繼承시키고 發展시키는데 있다면 亦是 窮極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古典研究와 聯關性을 지은 그러한 것이 아니면 안되리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勿論 過去 우리나라의 前代라는 것은 近代的으로 보아서 骨董의이고 封建的인 要素가 많아서 現實에는 맞지 않는 그런 면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려 나가느냐 하는 것도 直接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專門的으로 研究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남겨서 살려야 되느냐 하는 問題가 나올 것입니다. 己往의 專制的인 封建社會에 있어서 現代에 通하는 휴머니즘을 가진 思想이라던지 또는 英正間의 實學派 學者들이 생각한 著述속에 近代에 連結되는 要素를 찾아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여러 가지 古典을 翻譯해서 過去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을 普及시킴으로서 우리나라 過去文化에 對해서 親近性을 가지게 하고 거기에 뿌리를 박은 方向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要

(134 Paeg에 계속)